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AI 기반 한국어 학습 경험 탐색

챗GPT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ing Advanced Korean Learners' AI-Based Korea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 A Case Study of ChatGPT Utilization

김요셉*

국문초록 이 연구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챗GPT를 활용한 AI 기반 학습 경험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그 활용 양상과 인식, 전략,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TOPIK 5급 이상에 해당하며, 챗GPT를 매일 사용하는 고급 학습자 10명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1차 설문조사와 2차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양적·질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챗GPT를 주로 글쓰기, 문법 교정, 발표 준비 등의 고차 언어 기능 학습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출력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챗GPT의 기능적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대응 전략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챗GPT가 고급 학습자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가 아니라, 메타인지 기반의 자율 학습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급 학습자의 언어 수행 특성에 적합한 AI 활용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GPT 기반 학습 설계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고급 한국어 학습자, AI 기반 한국어 학습, 챗GPT, 한국어 학습 경험

- 차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학습자의 챗GPT 활용 사례 분석
 4. 논의 및 제언
 5. 결론

능을 제공하는 챗GPT는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고급 수준의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실제적 언어 사용의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챗GPT를 실제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챗GPT를 통해 어떤 언어 활동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느낀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 학습 도구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AI 활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AI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챗GPT의 등장과 확산은 언어 학습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텍스트 생성, 문법 수정, 대화 응답 등 다양한 언어 기반기

*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초빙교수

1.2. 선행연구 검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외국어 교육에서 챗GPT와 같은 AI 기반 도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활용 경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이에 대한 분석이 언어 기능별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Warschauer et al는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AI 기반 텍스트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해당 도구가 아이디어 생성, 표현 다양화, 문장 구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¹ 특히 학습자들은 챗GPT와 같은 도구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쓴 문장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자율적 글쓰기 수행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 Shaban and Noor는 고급 아랍어 학습자들이 챗GPT를 문법 수정, 어휘 선택, 문체 조정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면서, 생성형 AI가 상위 언어 기술을 지원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²

국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탐색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김유미는 TOPIK 말하기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피드백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생성형 AI를 통한 학습자 수행 향상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김성조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AI 도구가 수행하는 수정, 요약, 변형 기능이 고급 학습자의 자율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³

보다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AI 활용 경험에 주목한 연구로는 류재원과 소리나의 연구가 있다.⁴ 이들은 챗GPT를 중심으로 한 AI 도구가 실제 학습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어떤 인식과 기대,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장지영은 학문 목적 한국어 토론 수업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사례를 통해, 고급 학습자들이 AI의 정보 탐색과 논리 구성 기능을 실제 학습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⁵ 김형민은 고급 학습자와 챗GPT 간의 대화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생성형 AI가 모범 답안 제시를 넘어 언어적 사고를 촉진하는 학습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⁶ 또한 김명희는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AI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교육적으로 분석하였다.⁷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생성형 AI, 특히 챗GPT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특정 기능 중심이거나 교수자 주도의 수업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습자 주도의 자율적 활용 경험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챗GPT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중심으로 실증적 사례를 탐색하고자 한다.

1 Warschauer, M., Tseng, W., Yim, S., Webster, T., Jacob, S., Du, Q. & Tate, T. The affordances and contradictions of AI-generated text for writers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62, 101071, Elsevier, 2023.

2 El Shaban, A. & Noor, H., “Exploring the use of ChatGPT for advanced Arabic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change* 16(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al Technology, 2023, 1-18.

3 김성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75,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2024, 33~58쪽.

4 류재원·소리나, 「한국어교육 및 학습 도구로서 AI 활용 가능성 탐색: 챗GPT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1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75~84쪽.

5 장지영,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토론 수업 방안 연구: 가네의 수업사태와 STCPR을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 3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4, 133~157쪽.

6 김형민, 「한국어교육에서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적용 가능성 탐색: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ChatGPT의 상호작용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어문 연구』 76, 우리어문학회, 2023, 261~292쪽.

7 김명희, 「ChatGPT를 활용한 한국어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문예창작』 22(2), 한국문예창작학회, 2023, 55~86쪽.

2. 이론적 배경

2.1.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기준 상급 수준에 해당하며, 복잡한 문법 구조와 다양한 담화 유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말한다. 이들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학문적, 직업적 목적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받는다. 이러한 학습자는 기능적 언어 능력 외에도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 논리적 글쓰기, 설득적 말하기 등의 고차 언어 기능 습득이 필요하다.

고급 학습자는 비교적 자율적 학습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메타인지적 전략 사용 능력이 높다. 이들은 어휘의 의미 차이, 화용적 제약, 장르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입력뿐 아니라 출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특히 이러한 학습자는 언어적 정확성 외에도 유창성, 적절성, 문화적 함축까지 고려하여 언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은 인공지능 기반 학습 도구를 사용할 때도 반영된다. 고급 학습자는 단순한 정답 제공보다 오류 분석, 대안 표현 탐색, 장르 적합성 평가 등 고차원적인 언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언어 수행 능력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2.2. 인공지능과 외국어 학습

인공지능의 외국어 교육 적용은 기존의 튜터링 시스템, 채점 시스템, 챗봇과 같은 단순 반복 학습을 넘어서, 학습자와의 대화 및 피드백이 가능한 상호작용적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되면서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외국어 학습에서 AI는 학습자의 개별 성향과 수준을 고

려한 맞춤형 피드백, 실시간 오류 수정, 문체 및 표현 조정, 그리고 학습 진단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자율성과 분석 능력이 높은 고급 학습자에게 유용하며, 반복적 연습보다 고차적 언어 수행이 필요한 학습 상황에 적합하다.

AI는 특히 반복 학습에서의 피로를 줄이고,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학습 환경이나 독립 학습 상황에서 그 활용 가치가 높다. 학습자 스스로 언어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며 수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AI는 상호작용 기반 학습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2.3. 생성형 AI와 챗GPT의 교육적 활용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문장, 문단, 글 전체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언어 모델로, 대표적으로 OpenAI의 GPT 시리즈가 이에 해당한다. 챗GPT는 GPT-3.5 또는 GPT-4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논리적인 언어 산출이 가능하다. 특히 챗GPT는 다국어 지원을 포함하여,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챗GPT의 주요 활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문법 및 어휘 오류 수정, 둘째, 글쓰기 초안 생성 및 요약, 셋째, 회화 시뮬레이션, 넷째, 번역 및 표현 대안 제시이다. 특히 고급 학습자는 챗GPT를 통해 자신의 표현을 다듬거나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형민⁸은 고급 학습자와 챗GPT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문법 교정 외에도 비판적 글쓰기, 주제 탐색, 구조화된 발표 준비 등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가 단순

8 김형민, 「한국어교육에서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적용 가능성 탐색: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ChatGPT의 상호작용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6, 우리어문학회, 2023, 261~292쪽.

반복 학습보다는 사고력, 논리력, 표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활용에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챗 GPT가 생성하는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완전하지 않으며,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롬프트 작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지므로 학습자의 활용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학습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학습자의 챗GPT 활용 사례 분석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 능력시험 5급 또는 6급을 보유한 학습자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중이다.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챗GPT를 자율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AI 기반 도구를 한국어 학습에 일정 기간 활용한 바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적, 전공, 한국어 학습 경력, 디지털 도구 사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번호	국적	성별	연령	토픽 급수	한국어 학습기간	챗GPT 사용 빈도
1	베트남	남	25	5	3년	매일
2	중국	남	26	5	2년 6개월	매일
3	미국	남	29	6	3년	매일
4	독일	남	25	5	3년 6개월	매일
5	카자흐스탄	여	23	5	2년 6개월	매일
6	러시아	여	23	6	4년	매일
7	인도네시아	여	26	6	4년	매일
8	필리핀	여	27	6	3년 6개월	매일
9	프랑스	여	25	6	3년	매일
10	일본	여	28	5	2년 6개월	매일

〈표 1〉의 연구 참여자를 모으면서 국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별은 가능한 고르게 모으기 위해 노력하여 남자는 4명, 여자는 6명을 모집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모두 20대인데, 이는 참여자의 모집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토픽 급수는 5급과 6급이 각각 5명이며, 한국어 학습 기간은 짧게는 2년 6개월(3명)에서 3년(3명), 3년 6개월(2명), 4년(2명)이다. 그리고 챗 GPT 사용 빈도는 매일 사용하는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챗GPT 활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양적 및 질적 접근을 병행한 혼합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일반적 활용 양상과 인식을 파악하였고, 2단계에서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챗GPT 활용 과정에서의 실제 경험과 학습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고급 학습자의 복합적인 AI 활용 양상을 계량적 빈도 자료와 질적 서술 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계되었다.

3.2.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① 기초 정보(6문항, 개방형)

국적, 성별, 연령, 토픽 급수, 한국어 학습 기간, 챗GPT 사용 빈도

② 챗GPT 활용 범위(5문항)

챗GPT 사용 목적, 챗GPT 활용 학습 영역, 챗GPT 활용 과

제 수행, 챗GPT 활용 시 프롬프트 분량, 챗GPT 활용 시 사용 언어

③ 인식 및 태도(5문항,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학습 도움 여부, 신뢰성 여부, 흥미·동기 유발 여부, 접근성 여부, 심리적 부담감 완화 여부

④ 활용 전략 및 한계 인식(4문항)

챗GPT 답변의 검증 방법, 챗GPT 활용 단점, 챗GPT 답변의 활용 정도, 챗GPT에 대한 보완 요소

위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문항과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혼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설문 자료는 기술 통계 및 빈도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설문지는 사전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문항의 명확성과 내용 타당성을 검증한 후 최종 배포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모두 챗GPT를 매일 사용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로, 특정 과제 수행 상황에서 챗GPT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주로 한국어 또는 모국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며, 단순 오류 수정보다는 표현의 다양성 확보, 내용 요약, 유사 문장 탐색 등 고차원적 언어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3.2.2.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이후, 참여자 10명 중 챗GPT 사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언어 기능별로 분화된 응답을 보인 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25년 3월 한 달간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균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었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 목적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녹음 및 전사하였다.

인터뷰는 학습자의 실제 챗GPT 활용 경험을 언어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확인하고, 학습자의 전략적 사용 방식, 도구에 대한 인식,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 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심층 인터뷰 문항

챗GPT를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와 구체적인 사용 상황
 챗GPT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과 구체적인 활용 방식
 학습 영역별(쓰기, 말하기, 문법, 독해 등) 활용 경험
 프롬프트 입력 방식과 반복 질문 전략 사용 경험
 챗GPT의 반응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및 검증 방법 및 경험
 챗GPT 활용 시 느낀 구체적인 장점과 단점
 챗GPT에 대한 한국어 학습 측면에서의 보완점

이러한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응답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챗GPT를 단순한 언어 교정 도구가 아니라, 학습 맥락에 맞는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나 발표 준비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 학습자는 “챗GPT에 한국어로 초안을 입력하고, 더 자연스럽고 유려한 표현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면 다양한 문장 예시를 보여줘서 글쓰기 연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챗GPT가 제시한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대로 복사하거나 수용하기보다는, 표현 방식과 문법 구조를 분석하고 자신의 언어 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일부 응답자는 챗GPT의 출력 결과가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의미가 다소 부정확하거나 어색할 때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을 변형하거나, 인터넷 사전과 병행하여 확인한다고 답했다.

학습 영역별로는 쓰기와 문법 교정에서 가장 많은 활용이 나타났고, 일부 학습자는 말하기 연습을 위한 가상 대화 시뮬레이션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구성이나 반박문 작성 등 고차 언어 기능을 요

하는 작업에 유용하다는 인식이 뚜렷했다. 다만, 일부 학습자는 챗GPT가 고급 어휘나 특정 장르(예: 보고서, 학술 논문 등)에 적합한 표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맥락에 어긋나는 문장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3.3. 연구 결과

3.3.1. 설문조사를 통한 전반적 AI 활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 연구 참여자 전원은 챗GPT를 매일 사용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로서, 학습에 있어 해당 도구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각 영역별 주요 결과이다.

3.3.1.1. 챗GPT 활용 목적 및 영역

챗GPT의 활용 목적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용도는 ‘글쓰기 도움’이 10명, ‘문법 확인’이 9명이었다. 이어 ‘표현 다듬기’가 7명, ‘어휘 확인’이 6명, ‘번역’이 5명, ‘회화 연습’이 3명으로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들은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작성한 문장을 보다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다듬기 위한 도구로 챗GPT를 활용하고 있었다.

활용 영역으로는 ‘쓰기’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문법’이 6명, ‘말하기’가 4명, ‘독해’가 2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중복 활용하고 있었으며, 쓰기와 문법을 중심으로 챗GPT가 활용되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3.3.1.2. 프롬프트 입력 방식과 언어

프롬프트의 입력 분량은 3, 4문장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 2문장이 3명, 구체적 설명을 포함한 5문장 이상이 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질문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

한다.

사용 언어는 한국어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학습자가 4명, 모국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학습자가 4명, 모국어만 사용하는 학습자가 2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챗GPT의 출력 품질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얻기 위해 입력 언어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있었다.

3.3.1.3. 인식 및 태도

챗GPT의 학습 지원 기능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챗GPT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태도

번호	문항	평균값 (5점 만점)	표준 편차
1	챗GPT는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4.7	0.48
2	챗GPT가 제공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3.9	0.74
3	챗GPT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높여준다.	4.5	0.53
4	챗GPT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9	0.32
5	챗GPT는 부담 없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8	0.42

챗GPT 활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챗GPT는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서 평균값은 4.7로 매우 높았으며, 표준편차는 0.48로 나타나 응답자 간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GPT의 언어 생성 기능이 실제 학습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챗GPT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3.9로 다소 낮았고, 표준편차는 0.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GPT의 정보 정확성과 관련하여 학습자 간 인식 차가 존재하며, 일부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흥미 및 동기 유발 측면에서는 평균 4.5, 표준편차 0.53으로 학습자 대다수가 GPT 활용이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자율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부담감 완화 측면의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접근성’ 항목의 평균은 4.9, ‘심리적 부담 완화’ 항목의 평균은 4.8로 응답자 간 변동도 작았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0.32와 0.4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챗GPT가 고급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 없이 학습 내용을 탐색하고 표현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정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학습 동기 유지와 반복 연습 환경으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보 신뢰성에 대해서는 향후 챗GPT 활용 시 학습자의 검증 전략 또는 보완 자료 활용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3.1.4. 활용 전략 및 한계 인식

챗GPT의 답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응 방식으로는 ‘다시 질문을 수정하거나 반복 질문한다’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 검색으로 검증한다’가 5명, ‘교사에게 확인한다’가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부는 복수 선택하였다.

챗GPT 활용 시 가장 많이 지적된 어려움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7명, ‘프롬프트 작성’이 5명, ‘자연스러운 표현인지 확인이 어려움’이 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I 활용의 효과가 학습자의 질문 설계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챗GPT의 출력물 중 실제 학습에 활용 가능한 문장의 비율은 ‘71~90%’가 6명, ‘51~70%’가 3명, ‘91% 이상’이 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GPT의 생성 결과를 일정 수준 이상 신뢰하며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완 요소로는 ‘학습자 수준 반영 기능’이 9명, ‘문장 오류에 대한 설명 제공’이 8명, ‘한국어 문화적 맥락 설명’이 6명 등으로 나타났고, 이는 단순 생성 이상의 언어 학습에 특화된 기능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3.3.2. 인터뷰를 통한 AI 활용 경험의 심층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챗GPT를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목적 중심 활용 전략, 출력 결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 학습 양식과의 적합성 탐색 등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범주가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2.1. 과제 유형에 따른 목적 중심 활용 전략

응답자들은 챗GPT를 ‘무엇을 하려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GPT의 활용 방식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쓰기 과제를 준비하던 베트남 국적의 학습자 A는 “에세이를 쓸 때 논리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서 “초안을 써 보고 GPT에 ‘이 글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물어보면,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알려 주고, 표현도 바꿔준다.”고 하였다. A는 특히 문단 전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거나 접속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챗GPT의 도움으로 연습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쓰기 구조를 점검하는 학습 전략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발표 수업을 준비하던 러시아 국적의 학습자 D는 “GPT에게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GPT와 연습한 다음에 발표 연습을 했다”고 말하였다. D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제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었고, 발표 내용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3.3.2.2. 출력 결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조정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GPT의 결과물을 수동적

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 감각에 따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적의 학습자 H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GPT가 말은 맞는데 너무 ‘외국인 교과서’ 같다.”고 하면서 “진짜 한국 사람이 말할 것 같진 않아서, 표현을 반씩만 참고하고 나머지는 직접 바꾼다.”고 하였다.

이는 고급 학습자일수록 GPT의 문장을 완성된 모델로 보기보다는, 표현의 대안이나 참고자료로 인식하며 선택적 수용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학습자는 GPT가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이전 질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의 학습자 B는 “두 번째 질문에 앞 질문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대화가 끊기는 느낌”이라고 말하며, ‘문맥 유지가 부족한 응답’을 AI 활용의 한계로 지적했다.

3.3.2.3. 학습 양식과 AI의 상호작용 가능성 탐색

흥미롭게도 인터뷰에서는 학습자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방식이 그들의 기존 학습 양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독일 국적의 학습자 C는 GPT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질문을 변형하고, 다양한 답변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질문을 해 보면, GPT가 다르게 대답할 때가 많은데 그걸 비교해서 어떤 표현이 더 논리적인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탐구형 학습자(inquiry-based learner)의 특성을 반영하며, 챗GPT가 학습자의 인지 활동을 확장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일부 학습자는 GPT의 기능을 단순 ‘교정 도구’로만 활용하며, 결과물에 대한 비교나 반성적 검토 없이 한 가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는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GPT 활용 방식의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3.3.2.4. 분석 요약 및 시사점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GPT를 단순 정보 제공자보다는 학습 파트너로 인식하며, 이를 통해 언어 사용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전략을 형성하고 있었다. GPT 활용의 효과성은 프롬프트 구성 능력, 결과 해석력, 비판적 판단력에 따라 달라졌으며, 이는 곧 학습자의 메타인지 전략 및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GPT는 정답 제시보다는 언어 표현의 다변화, 아이디어 조직, 문장 조정 등 고차 언어 능력의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GPT 출력에 대한 신뢰도나 문화적 맥락 이해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은 교육적 설계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4. 논의 및 제언

4.1. 고급 학습자 AI 활용 경험의 특징

본 연구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챗GPT 활용 경험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고급 학습자의 AI 활용 경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목적 지향적 사용이 뚜렷했다. 학습자들은 단순히 궁금한 점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챗GPT를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쓰기 과제에서 챗GPT는 초안 작성, 문단 연결, 표현 수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둘째, 선택적·비판적 수용이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GPT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문장의 자연스러움, 맥락 적합성, 표현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내용을 취사선택하였다. 이는 고급 학습자의 언어 민감성과 메타인지 능력이 AI 활용 방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GPT 활용 능력 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복 질문 전략, 프롬프트 조정 능력, 결과물 평가 방식은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향후 GPT 기반 학습 도구 설계 시 사용자 맞춤형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GPT는 단순 반복학습이 아닌, 사고 기반 언어 수행에 기여하고 있었다. 단순 문법 교정이나 답변 생성보다는, 표현의 다양화, 구조적 정리, 표현 톤 조정 등 고급 수준의 언어 사용이 요구되는 작업에서 챗GPT가 실질적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가 특히 고급 언어 학습자에게 있어 '언어 훈련 도구'에서 '사고 촉진 도구'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4.2.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GPT 활용 교육의 전제는 학습자의 전략적 사고와 디지털 문해력 강화에 있다.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것을 학습 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학습자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GPT 활용 수업에서는 프롬프트 설계 방법, 결과물 평가 기준, 맥락 조정 전략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 교육과정 내에서 GPT를 '도구'가 아닌 '상호작용 상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급 학습자에게는 GPT를 활용한 모의 인터뷰, 반론 구성, 다단계 글쓰기 훈련 등 사고 확장형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언어적 도전과 동시에 표현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며, 창의적 언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GPT를 통한 학습 내용은 반드시 검토와 수정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GPT의 답변은 일부 사실 오류나 문맥 부적합성을 포함하

고 있었으며, 학습자의 비판적 검토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AI로 작성된 문장을 평가하기', 'GPT의 오류를 고치기'와 같은 활동을 수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AI 활용 교육에서는 기술적 훈련보다 학습자 중심의 언어 선택 능력 강화가 핵심이다.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GPT를 통해 '표현의 대안'을 모색하고, 그 중 자신에게 적합한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감각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더 이상 정답 중심의 평가보다, 과정 중심의 언어 수행 역량 함양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력 강화, 자율 학습 지원, 메타인지 확장에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목표 설정, 적절한 전략 교육, 결과 검증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한국어 교사 및 교육자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챗GPT가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학습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고급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6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챗GPT는 고급 학습자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학습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자율 학습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그 활용 방식은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GPT를 글쓰기와 문법 교정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도구의 접근성과 심리적 안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정보 신뢰도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GPT의 결과물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인터뷰 분석에서는 학습자들이 GPT를 언어 수행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아이디어 구성, 문장 조정, 표현 다양화 등의 고차원적 언어 활동에서 GPT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표현의 맥락 적절성, 문화적 어색함, 응답 일관성 부족 등은 학습자가 지적한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GPT를 단순한 '정답 기계'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 목표에 맞는 자율적 학습 도구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특히 GPT 활용의 효과는 기술의 성능보다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전략적 사고력과 비판적 언어 능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연구 참여자 수가 10명으로 소규모에 해당하며,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모든 참여자가 챗GPT를 매일 사용하는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어, AI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나 초급·중급 학습자의 경험은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실제 학습 성취도의 변화나 GPT 활용 전후의 학업 성과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GPT 사용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와 사용 빈도를 고려한 표본 구성이 필요하며, GPT 활용을 중심으로 한 수업 모형 개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설계, 프롬프트 기반 과제 설계 방안 등 교육적 실천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GPT가 제공하는 언어 입력이 학습자의 표현력 향상, 담화 능력 신장, 메타인지 촉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장기적·실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확산 속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실제 활용 경험을 정교하게 탐색함으로써, 기술 중심 논의를 넘어 학습자 중심의 언어교육 관점에서 AI를 바라볼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GPT와 같은 도구는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심화시키는 '보조적 상호작용 환경'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명희, 「ChatGPT를 활용한 한국어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문예창작』 22(2), 한국문예창작학회, 2023.
- 김성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75,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2024.
- 김유미, 「토픽 말하기 평가 5번 문항에서 피드백 프롬프트의 설계 및 효과 검증: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49,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 연구소, 2024.
- 김형민, 「한국어교육에서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적용 가능성 탐색: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ChatGPT의 상호작용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6, 우리어문학회, 2023.
- 류재원 · 소리나, 「한국어교육 및 학습 도구로서 AI 활용 가능성 탐색: 챗GPT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1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 장지영,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토론 수업 방안 연구: 가네의 수업상태와 STCPR을 기반으로」, 『한국어교육』 3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4.
- El Shaban, A., & Noor, H., "Exploring the use of ChatGPT for advanced Arabic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change" 16(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al Technology*, 2023.
- Warschauer, M., Tseng, W., Yim, S., Webster, T., Jacob, S., Du, Q., & Tate, T., "The affordances and contradictions of AI-generated text for writers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62, 101071, Elsevier, 2023.

Abstract

Exploring Advanced Korean Learners' AI-Based Korea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A Case Study of ChatGPT Utilization

Kim, Joseph | Wooso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gration of generative AI into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ing by examining how high-level learners utilize ChatGPT as part of their study routines. The participants were ten Korean language learners at TOPIK levels 5 and 6 who reported daily use of ChatGPT. A mixed-methods design was employed, incorporating a structured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to collec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indings reveal that learners predominantly engaged with ChatGPT for complex linguistic tasks, including academic writing, grammar refinement, and presentation preparation. Rather than accepting AI-generated output uncritically, participants actively evaluated and revised the content based on their linguistic competence and contextual understanding. Moreover, learners employed self-regulated strategie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ChatGPT, such as its tendency to produce overly formal expressions or lack contextual nu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atGPT functions not simply as a language resource, but as a metacognitive partner that facilitates reflective and autonomous learning processes. The study offer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incorporating generative AI into advanced Korean language education, particularly in supporting learner autonomy and cognitive engagement.

Keywords advanced Korean learners, AI-assisted language learning, ChatGPT, autonomous learn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이 논문은 2025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6월 20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